

靈嶺

84 1997
초겨울호

● 地域文化 · 地域人情 · 地域情報 ●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 잠언 3장 5~6절 말씀 —

편 / 집 / 후 / 기

○... 송년호를 엮는 마음이 어느 해보다 조금하다. 문화원의 일이 그만큼 바쁘고 일이 많았다. 10년주기를 안팎으로 편찬한 「전주시사」를 비롯해서 전주에서는 최초로 편찬한 「전주시관내 문화재도록」 그리고 「어린이와 엄마가 함께 글짓기」와 입상 작품집 「자랑스런 우리전주」, 「새전주시민 가정의 가훈 무료 써주기」, 「주부문학교실 개강」, 「할아버지·할머니 노래사랑」, 「고전연구회 강독회」, 「노령봉사상 시상」, 종합지 「노령」의 4회 발행, 「97 산업체 근로자 문예작품 현상모집」과 입상 작품집 「지금 몇시입니까」 발행 등의 사업과 행사를 했다.

○... 이러한 바쁜 일정을 보내다보니 전주문화원이 전국 최우수 문화원으로 선정되었다. 문화원의 문형식차장과 박지현간사의 노고가 많았음을 밝힌다.

○... 83호에 이어 계속 「전주정신의 재조명」을 특별기획으로 엮었다. 새롭게 발전하는 새로운 새전주의 21세기 비전을 확고하게 다지는데 다소나마의 기여가 되기를 바란다

〈 송 〉

● 본지는 한국도서잡지 윤리위원회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螢 嶺

비매품 · 1997년 12월(제84호)

인쇄/1997년 11월 29일 · 발행/ 1997년 12월 1일

발행인/金光鎬

편집인/宋榮相

편집장/文炯植 · 인쇄/徐錠歡

문화체육부 등록 마-962호 · 등록일/1981년 8월 10일

발행/全州文化院

蠶嶺

● 地域文化 · 地域人情 · 地域情報 ●

8 권두제언

새로운 전주정신을 가꿈시다

김광호

'97송년특별기획 · 전주의 재발견

- | | | |
|----|-------------------------|-----|
| 10 | 若無湖南 · 是無國家 이순신이 밝힌 고장 | 조병희 |
| 15 | 음식문화와 함께 하는 소리축제 기대 | 유응교 |
| 18 | 전주를 완만한 완인 전인의 단지로 | 박정훈 |
| 23 | 전주는 호남기독교 선교센터로 등장 | 김대전 |
| 28 | 문화유산에도 상품화개념 도입해야 | 김성연 |
| 34 | 내 주장은 옳고 상대는 허위라는 생각버려야 | 김영신 |
| 39 | 옛부터의 온고를 정신을 되받아 발굴 | 최근무 |
| 44 | 미래지향적인 상징으로 전주비전을 | 박대길 |
| 49 | 전주를 용비어천가의 도시로 개발 | 김 학 |
| 53 | 후회없는 새로운 변화를 가꾸고 보전 | 유장우 |
| 56 | 되찾아야 할 전주 선비정신을 구현 | 이흥근 |
| 60 | 예술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수익상품 | 김용옥 |
| 65 | 전통문화를 현대문화와 병행 | 김순정 |
| 72 | 후백제 왕도의 혼과 기를 오늘에 되살려야 | 한무웅 |
| 75 | 역사인물을 귀감으로 전주정신 창조 | 이종근 |

80 이호선칼럼

뛰어들어 함께 하는 축제되어야

이호선

82 전북 · 전북인 탐구②

시인 신석정 스승님

소병일

94 전주 · 새롭게 바꿈시다⑥

전주권의 위기의식과 대책(1)

유봉영

99 재광 전주여고 동문회

광주광역시 · 전남지사 부인도 전여고 동창

조효현

103 나의 여고시절

유치 찬란한 마법의 성

김순영

내 청춘, 그 불가사의가...

공숙자

114 나의 고교시절

영원한 선생님 그리고 그때 그 일들

김경식

1997년 12월호

84

題字/友山 宋河璟 · 表紙畫/詩-조미애, 畫-김부견

- | | | |
|-----|--------------------------------------|---------------|
| 120 | 아름다운 고향산천
내고향 산외(山外) 그 어렸을 적 이야기 | 임광순 |
| 123 | 나의 애창곡
사랑하는 이에게 들려주는 새타령의 흔적 | 조미애 |
| 127 | 한술 종이 박물관 개관
전주에 국내 최초 유일의 종이 박물관 | 황충국 |
| 136 | 우리말 우리글
'혀' 와 써/쎄 | 이태영 |
| 138 | 좋은 글귀 풀이
구우일모(九牛一毛) | 유종연 |
| 140 | 박지현의 북유럽 테마기행①
폐쇄에서 개방된 러시아로 간다 | 박지현 |
| 146 | 한의학요법⑬
향기요법 | 송용선 |
| 148 | 장인 만나러 가는 길①
고창의 망건장(網巾匠) 이옥례 여사 | 신부자 |
| 153 | 시사칼럼
새 단양팔경 | 송정덕 |
| 156 | 이해 돕는 시 감상법⑦
감정 절제의 시인 「시인 정지용」 | 정희수 |
| 161 | 출판에 얽힌 이야기⑤
완판본과 전주 | 서정환 |
| 165 | 續 · 나의 文學 60年 ⑤⑧
시인 김해강 일기초 | 정리 · 조규화 |
| 169 | 全州風物記 ④④
전주천변(全州川邊) | 송영상 |
| 79 | 내고장 山河 스케치
가람 이병기 생가 | 이방우 |
| 135 | 표지화 초대석
마애불(磨崖佛) | 詩/조미애 · 畫/김부견 |
| 172 | 편집후기 | 편집실 |

음식문화와 함께하는 소리축제를 기대

신선로의 민속관에서 전통민속음악을 감상

지역의 문화와 세계의 문화가 접목을 시도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행사가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역시 어떤 형태이건 축제를 갖는 일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지역에서나 각종 축제행사를 갖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영화 축제에서부터 꽃 축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축제행사가 되고 보니 전북은 언제 이와같은 세계적 축제가 열리나 하고 안타까워 하고 있는 터에 소리의 축제를 내년부터 개최하겠다고 하니 도민의 기대가 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에 본인이 주장한 전주민속올림픽을 개최하자고 제안한 바 있었는데 아마도 우리 고장에서는 맛과 멋의 축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알맞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축제의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소리축제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음식문화와 함께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각국의 타악기 축제로 끝나서는 사람들이 모

유 응 교



-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 공학박사
- 전북대학교 학생처장
- 미국 MIT 객원교수
- 전북일보 객원논설위원 · 전북대학신문기자회장
- 전북예총 건축협회 지부장 · 전북예총 부회장
- 시집 「그리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칼럼집 「전북의 꿈과 이상」

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국의 전통 민속음식이거나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맛의 축제와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국의 음식문화 특색에 맞는 건물을 짓고 그 안에서 음식을 사서 먹게 하고 그나라 고유의 민속음악을 선보이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축제 기간동안 모여 들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둘째, 음식문화의 특색과 결들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각국의 특색에 알맞는 민속관을 지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은 햄버거 모양의 건물을 짓고 중국은 오리모양의 건물을, 일본은 물고기 모양의 관을 지어서 그 속에서 각각 그나라 고유의 음식인 햄버거와 오리고기와 생선회를 맛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관은 달팽이관을, 독일은 감자모양의 건물을, 이탈리아는 스파게티 모양의 건물을 지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불고기가 유명하니까 신선로 모양의 건물을 짓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이와같이 코믹하고 흥미 진진한 건물을 지어야 관광객이 모여들고 그속에서 그 나라의 음식과 그 나라의 민속음악을 감상하면서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축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축제에는 반드시 경연대회의 성격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1년이나 2년마다 축제를 개최한다고 하면 요리경연대회와 민속음악이나 무용의 경연대회를 함께 해야 한다. 이러한 경쟁적 관계를 통한 대회를 가지면 각국도 위상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본 축제에 대비하리라 보기 때문이다. 대회 축제기간은 나라의 참가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개월 내지 2개월 동안이 적당하리라 생각된다. 대회기간이 끝나게 되면 각국의 민속관은 일반 시민에 임대 계약 형식으로 대여해 주되 해마다 일정기간 동안은 각국의 대사관에 건물을 임대 해 주는 조건으로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러한 축제를 맛과 멋의 축제로 승화시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민속음식관을 지어야 할 것이므로 각 기업체로 하여금 2억원 정도의 건축비로 시당국이나 도당국에서 마련한 5만여평의 부지내에

신축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 믿는다. 축제행사를 위해서 막연히 기부금이나 회사금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리축제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리축제 혹은 전주 민속올림픽 추진 준비위원회를 사계의 전문가로 하여금 발족케하여 관과 민이 하나가 되어 치밀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진 필자는 서울의 롯데와 신라호텔의 실무자와 협의해 본적이 있는데, 그들은 프랑스나 싱가포르 등에서 세계적인 요리경연대회가 열리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는 전주가 가장 적합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왜 이러한 행사를 개최할 생각을 갖지 않는지 안타깝다고 하였다.

행정당국에 나는 묻고 싶다. 대학의 연구소나 전문가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던져주었을 때 왜 그러한 생각들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선뜻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적당히 호도하거나 변질시키거나 핑계를 대면서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가.

이웃의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기획을 하여 그 지역의 문화발전과 관광소득의 증대를 위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식인의 충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행정은 영원히 낙후를 면치 못할 것이다.

21세기 미래는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의 속도에 맞추지 못하는 행정은 언제나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점을 충고해 두는 바이다. 예술문화의 본고장인 전북도가 맛과 멋의 한마당 축제를 위하여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할 것인지 앞으로 계속 지켜볼 따름이다. **靈嶺**

의해 예술이 지켜졌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확연히 변했다. 배부르고 등따수운 시절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어찌 어찌해서 배불러진 사람들이 명예를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또 예술을 빌미삼아 경제력을 얻기도 한다. 예술은 가난할 필요도 없고 배불러 나쁠 것은 더욱 없다. 그러나 헛되게 벌여 헛되게 쓰는 창녀처럼 취급되어서도 안 되고, 줄지에 돈 벌여 줄지에 쇼파에 등 기대는 졸부마냥 취급되어서도 안되는 게 예술이다.

왜냐하면 예술이 썩으면 인간정신의 마지막까지 썩는 거니까!

사설이 길었다. 잘못된 거, 버려야 할 게 뭔가 꼽아보아야 새로이 세워갈 목표가 생기니까 그랬다. 이제, 개성이나 특색있어야 살아 남는다는 기업정신처럼 전주를 몇 가지 상징성으로 짚어보아야겠다.

배불리 먹고 살 만하니 놀아볼 마음이 흔해지고, 놀러나갈 일 많아 지니 외식산업이 성업이 된 현대다, 이러다보니 먹을 거리 문화도 대도시에서 여러가지로 발전해왔다.

전주의 먹을 거리 상징처럼 여겼던 비빔밥, 해장국, 한식집 없는 도시가 없다. 그렇데도 아직은 전주! 하면 음식솜씨요, 비빔밥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미 내걸린 간판을 명실상부하게 개발하고 발전시켜 독보적으로 변창시켜야 한다. 음식에서도 구태의연을 벗어나야 한다. 먹을 거리 문화도 체인점 형식으로 이미 타지역 상품이 전주에서까지 판치고 있지 않은가. 역으로 우리의 전주 비빔밥이 타지역에 체인점을 낼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다. 이 지역은 산해진미의 보고다. 산채, 야채, 어류어패를 비빔밥에 잘 이용하면 수십가지 비빔밥 상품을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사철내내 쇠고기 비빔밥, 오징어비빔밥, 반지락 비빔밥, 굴비빔밥, 여러가지 생선회비빔밥도 가능하다.

또한 말린 산채비빔밥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다. 요즘사람들은

자기의 체질, 병중에 따라서 음식을 다양하게 요구한다. 산채잡탕비빔밥, 도라지비빔밥, 미삼비빔밥, 감자밥, 고구마밥, 무우비빔밥, 콩나물비빔밥, 열무비빔밥, 잡곡비빔밥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뿐 아니다. 생채를 이용한 비빔밥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 생채소나 익힌 나물을 구별하여 고명을 얹으면 된다. 거기다가 비빔장을 여러 종류로 개발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간장비빔밥, 쇠고기자장, 간장비빔밥, 집장비빔장, 고추장양념장, 막장비빔장 등등 식성에 따라 맞춰먹을 수 있도록 하면 누구라도 선호하는 식품이 되지 않으랴. 아이들을 위해선 케찹비빔장이나 양식소스를 이용한 비빔장도 개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개발하여, 민과 관이 연계하여 외지로 수출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일석삼조가 될 것이다. 맛의 고장 전주로 관광산업을 부추길 수도 있고(먹을 거리 여행을 다니는 시대니까), 수출도 할 수 있을 테니까.

시대의 입맛과 현대인의 다양한 입맛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다음 세대들의 입맛은 이미 변하고 있고 그들은 미래의 소비주체다. 전주가 더이상 주저앉아 있어선 안 된다. 어서 방법을 뚫고 21세기를 준비해야 한다. 맛의 고장 전주의 명성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된다.

두리뭉실한 예술이라는 단어를 버리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예술 상품을 내세워야 할 때다. 주먹구구식 자량은 더이상 영리한 현대인에게 먹혀들지 않는다. 실제로 특화되고 독보적인 문화상품이 되어야 예술 구미를 끌어당길 수 있다. 외국예술, 외래예술과 당당히 경쟁할 예술은 무엇일까?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고도(古都)의 물골, 외형적 유산은 투자효과가 미약하여 전주의 자량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무엇을 얼굴로 삼을까? 바로 수백년간 이 땅에서 가장 한국적이며 세계유일 악예술을 명실상부한 전주의 예술상품으로 길러야 한다.

창과 판소리, 줄풍류, 시조창, 국악기소리, 사물놀이, 농악 등등은 미